제2의 인생설계 : 착한 개발도상국에서 겪은 국제협력 활동기

박봉식 (전)서울시의회 비서실장
bakbons@hanmail.net

개요

공직에서 퇴직 후 어느 날 한국을 박차고 해외로 나가는 꿈을 꾸게 되었다. 서울시에서 30년을 근무하고 2010년 6월 말 퇴직한 후 동네 시립도서관에 다니다 모 일간신문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모집하는 중장기자문단 광고를 접한 것이다. 지원 자격은 '해외봉사 의욕을 가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퇴직자'로 되어있었다. 이러저런 고민을 하다가 접수 마지막 날 '콩고민주공화국(이하 '콩고'라고함[1]) 농촌개발부 지역개발직'에 지원했다.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면접시험에 임하면서도 이 전형과정을 통과하리라는 확신은 가지지 못했다. 단지, 해외 봉사를 하겠다는 의지, 장기간의 공직 경력, 그리고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다는 생각만 했을 뿐, 선발기준에 대한 정보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콩고는 물가가 믿기지 않을 만큼 비싸고 부패지수가 상당히 높았으며, 말라리아 발생지역, 에이즈 감염률이 높은 점, 동부지역은 전쟁 중이고 항공기 추락사고, 선박 전복 사고 등의 뉴스는 내심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할까? 갈까 말까? 사실 60평생을 한국에서만 생활하던 내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멀고도 먼 미지의 아프리카를 혼자 가게 된다면, 과연 나의 선택은 현명한 것일까? 한 달 여를 고민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교육을 받고나서 수원국으로부터 동의서가 오면서 봉사활동을 가는 방향으로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었다.

누구는 태어나서 의식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는 하루 밥 한 끼 먹기도 어려운 것이 오늘날 지구상의 인류들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모습이다. 한국은 운좋게 한국전쟁 후 50여 년 동안의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세계 최빈국에서 공여국으로 변신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것은 슬기로운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훌륭한 지도자들의 지혜가 합쳐져 이루어낸 ODA[2]역사의 전설이기도 하다. 70억여 명의 지구촌 인구 중에서 한국민 4천 7백만 명은 한국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최소한의 기본욕구를 해결한 국가로 발전시켜왔고,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동승하고 있다는 것에서 자긍심을 느끼기도 한다.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것이지만,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원조국가로서의 위치를 다졌고, 2010년 ODA/GNI 비율은 0.12%로서 11.7억 달러를 국제사회에 원조하였다[3].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은 점증할 것이고 개도국에 진출해서 그동안 한국이 갖고 있는 경제성장의 발전노하우를 전수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개도국 국민들의 삶은 어떠한 것일까? 우리도 불과 50년 전에는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였는데, 순간 나는 그게 궁금해졌다.

1 콩고 강을 사이에 두고 콩고민주공화국(수도 : 킨샤사)과 콩고공화국(수도 : 브라자빌)이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서 콩고는 콩고민주공화국을 지칭한다.
2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의 약자. 국제개발협력은 일반적으로 ODA를 지칭한다.
3 ODA/GNI는 총 ODA 순지출 규모 대 명목국민총소득에 대한 비율로 한국은 2009년 가입 이후 해마다 ODA/GNI 비율을 상향하여 2015년에 0.25%까지 증액하기로 되어있다. 유엔은 선진국들에게 동 비율을 0.7%까지 늘릴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고 있는 국가는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5개국에 불과하다.

표1 해외자문관 모집 개요

구분		한국국제협력(KOIC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소속중앙부처		외교부	산업자원부
기관임무		해외무상원조 전담. 퇴직인력 해외진출 활성화	정보통신산업의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창출
해외봉사	지원 자격	50세이상,학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해당분야 10년 이상 전문 경력	
	선발 절차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기술, 일반, 외국어, 인성검사), 3차 :신체검사 및 수원국 의견조회	
	중점파견국	최빈국	중위 개도국
	실 선발인원	00명	00명
	인력관리	해외사무소 운용	본부 직접 운용
	특 성	해외봉사활동 총괄기관	퇴직전문가 선발 파견

자료 : 각 홈페이지 모집 안내문 재정리

국제협력 활동의 채비

은퇴자에게 퇴직이란 무엇인가? 생각 여하에 따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일 수 있고, 이모작 인생을 편안하게 즐기는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즘 봉사활동의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활발하게 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선진화된 공동체 의식을 튼튼하게 형성하는 밑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민간부문에서는 대기업, 비영리법인, 교회 등이 개발도상국에 나가서 다양한 봉사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산업화의 역군들인 은퇴 인력들에게 해외봉사 활동할 기회를 제공하는 곳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있다(표1 참조). 기본적으로 응시자격, 선발과정과 기준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나의 경우 자문관으로 선발되어 수원국으로 출발하기 이전 단계에서는 해당국가의 생활회화를 익히고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종교 등은 물론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한 한국, 선진국의 자료를 수집하면서 체력관리에도 신경을 썼다. 말라리아는 몸이 피곤하거나 쇠약해질 때 발병하기 쉽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서도 가장 먼저 챙길 것은 건강이다. 건강한 신체가 전제되어야 건강한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단신 근무가 원칙이므로 빨래, 조리, 쇼핑, 주거지 등의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하다. 둘째, 영어를 잘 구사하면 좋고 쓰기 실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또 수원국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셋째,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을 잘 활용하면 현지 근무에서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IT 강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능력이기도 하다. 넷째, 수원부서 파트너 또는 공무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기법을 터득할 필요가 있다. 파트너를 비롯한 관련인사들과 친화력을 유지하고 인간적으로 끈끈한 유대를 맺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뢰의 바탕은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자연스레 다져질 것이다. 다섯째, 수원국 정보, 자문활동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자문분야 이외에도 한국이 앞서가고 있는 분야, 예를 들면, ICT, 직업훈련, 새마을 운동, 한국 교육 체계, 한글 학습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그들이 관심을 보이면 자료를 공유하고 협력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본다.

착한 국민들의 순종적인 삶의 나라 – 콩고

케냐 나이로비 공항 면세점 벽 한 모퉁이에 쓰여진 다음과 같은 글귀를 본 적이 있다.

"In Africa, slowly!"(아프리카에서는 천천히!)

'빨리빨리'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은 대목이다. 지금 한국인은 지극히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다. 예기치

그림1 식량 부족 문제 국제 컨퍼런스 참석

그림2 농촌개발 전략 컨퍼런스 개최

못한 세월호 사고로 인해 국민 모두가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을 것이지만, 이제는 정말 천천히 가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른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여유,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거나 걸어가지 않고 잠시 서서 이동하는 느림이 공기 속의 산소처럼 소중하게 느껴진다.

한국과 콩고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두 나라 모두 과거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는 점이다. 한국은 35년, 콩고는 무려 300여 년의 식민지 생활을 한 것이다. 콩고 국민들은 착하다. 그들의 눈망울은 선하고 맑다. 불평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더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한다. 어떤 점은 우리와도 어느 정도 닮은 것 같은데 그들은 지금도 기아선상에서 생활하고 있고 어찌보면 더 후퇴의 길을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내가 근무한 곳은 중앙부처의 하나인 '농촌개발부'이다. 부여된 주된 과제는 낙후된 농촌개발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지방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감독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과제 수행은 처음부터 쉽지가 않았다. 미국 유학파인 담당국장은 장관실로 발령이 났고, 새로운 국장은 영어를 하지 못하고 나는 불어를 못하니 업무가 잘

그림3 한국 전통문화 수업

그림4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현지 간담회

진행될 수가 없었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한류를 사랑하고 한국제품을 좋아하며 항상 따듯한 마음으로 이방인을 대해주는 것이었다.

킨샤사에서 차량 없이 시내를 나다니면 곧 강도를 당하게 된다. 한국인은 피부색이 달라서 쉽게 노출이 되므로 대낮에도 혼자서 길거리를 걷는 것은 삼가야 할 일이다. 생활 전반의 여건이 불량하고 도시기반 시설은 열악하기 때문에 생활이나 자문활동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았다. 그래도 나름대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보냈으며, 기간 중 콩고 지역개발 전략 수립 협의 및 의견수렴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지역개발 활성화 방안 제안, 한국 사례 소개, 한국 문화 전수 및 프로젝트 발굴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단군할아버지께서 제시한 홍익인간의 이념을 널리 지구촌에 구현하는 방편으로도 의미가 있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족한 삶의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우리가 잘 해 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본다. 나만 잘사는 것보다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이 아니겠는가!

여담으로 외국에서 내 동포를 만나는 건 반가운 일이다. 낯선 이국땅에서 교민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루하고 외롭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다.

자유롭고 편안함을 주는 나라 – 태국

콩고에서 귀국하여 국내취업을 추진하였지만 마땅한 자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지원한 곳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운용하는 퇴직전문가 프로그램으로, 파견된 국가는 동남아의 중심국가 태국이었다. 일년 간 총리실 산하 '공공부문개발위원회(OPDC)'에서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18개 산업단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이었다. 특히, 농업국가로서 전략적으로 중요시하는 농공단지와 관광대국으로서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같이 현장을 돌아보고 토론하며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태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태국은 한국전쟁 참전국이고 아세안 공동체의 주도국가로서 우리에게 오랜 맹방이요, 아주 중요한 경제협력국이다. 국민들은 세계열강으로부터 식민지를 경험하지 않은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며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은 장장 재위 68년에 이르는 왕권을 누리고 있다. 거리 곳곳에는 왕과 왕족들의 사진이 즐비하게 걸려있는 절대왕국의 나라이다. 어찌 보면 후진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고 달리 생각하면 훌륭한 시민의식을 갖춘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21세기 글로벌시대에도 지배자는 엄청난 숭배와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이 놀랍기까지 하다.

방콕은 일교차가 콩고보다 적어 더 더운 듯하였지만 잘 구축된 도

시기반시설과 시스템으로 외국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별로 느낄 수 없었다. 방콕의 교통체증은 원체 심하기는 하지만 그 밖에는 생활하기 아주 편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남부국경지역에서 종교 분쟁으로 끊임없이 테러가 발생하고 있고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미래지향적인 아세안시대의 발족을 앞두고 장애물들이 하루 빨리 제거되기를 소망한다.

개도국의 국민들은 친절하고 순박하다. 방콕에서 생활하면서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다. 버스를 잘 못타는 경우 버스안내양은 차비를 받지 않는다. 잔돈도 어김없이 돌려준다. 어떤 경우에는 모든 승객에게 차비를 받지 않는다. 주로 이른 시간 또는 늦은 시간에 벌어지는 일로 아마도 하루 벌어 먹고살기 바쁜 서민들을 위한 아주 착한 대중교통 정책의 일환인 것 같다. 태국이란 말에는 자유로운 나라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자유롭고 바쁘게 행동하지 않는다. 출퇴근 때에는 교통체증이 엄청 심하지만 경적을 울리지 않고 마냥 기다린다. 우리와는 상당히 다른 세상, 느림의 행복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한편, 길거리에서 데모를 빈번하게 하고 정파 간에 치열한 권력싸움을 벌이는 것을 보면 국왕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방콕은 외국인에게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수십여 개의 국제기구가 위치해 있고, 여성 기업가가 많은 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두드러진 나라가 바로 태국이다. 방콕은 지방보다 소득이 4배 정도 높다고 하니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시사철 더우면서 보건위생이 양호하고 지방에도 도로는 잘 발달되어 있다. 태국이 매력적인 것은 물을 이용하여 관광을 잘 발전시킨 점이다. 우리로서는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상호 윈윈(Win-Win)하는 관계를 잘 유지 발전시켰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져본다.

경제발전과 행복도 관계

인간에게 가난이란 무엇인가? 50~60 대 이상의 한국인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어릴 적 가난한 시절을 보낸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위안하고자 반추하던 말이 생각이 난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다만, 불편할 뿐이다." 이것은 최빈국 국민들이 남에게 손 벌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과 상통하는 말일 것이다. 공여국으로서는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수원국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ODA를 수십 년 동안 받아왔으나 그들의 삶이나 경제성장은 그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혹자는 아프리카 원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남미의 경우에는 그나마 다소 진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평가의 이면에는 원조가 오히려 수원국들에게 의타성을 조장하고 관성에 젖게하여 독립심이나 자립경제 의지를 꺾게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할 때 한 나라의 경제발전이 곧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도 1974년 발표 논문에서 경제성장과 행복지수는 반드시 상관관계에 있지 않다는 역설적인 주장을 폈다. 오늘날 한국이 안고 있는 어두운 과제들을 보면 그런 주장에 동의하게 된다. 반면, 태국의 경우 **표2**를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의 1/4에 불과하지만 한국보다 행복지수는 높다. 태국사회도 신분계층을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최상층에 왕족이 있고 승려와 고위군인 세력, 재벌 등의 부유계층이 그 밑을 형성하고 있고 군인, 경찰, 공무원 계층이 있고 그 아래로는 일반서민층으로 나눌 수 있다. 그날 벌어 그날 먹고사는 60~70%의 서민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사후세계에서는 더 나은 신분상승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으면서 현실에 순응하는 인생관을 갖고 있다고 한다. 행복은 같은 상황에 있어도 개인별로 편차가 심할 수 있다. 욕구에 대한 성취 정도, 가치관과 같은 주관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표2 봉사활동국의 행복지수 및 소득 비교

구분	행복지수순위*	GNI(1인당 국민소득 : 2012년)**	
		순위	금액 (USD)
한국	41	31	22,670
콩고민주공화국	117	176	220
태국	36	87	5,210

*유엔 세계행복보고서, 2013, 조사 대상 국가는 156개국
**World Bank, 2013,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base, 176개국에 대한 자료

결론적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국제 원조와 국제기구들의 노력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지만 유무상원조가 기대만큼 수원국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것과 세계 각국의 행복지수가 항상 경제발전과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공여국은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무리 글

미지의 세계, 가보지 않은 길을 갈수 있게 열어준 한국국제협력단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감사드린다. 원조를 받던 입장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베풀 수 있다는 것. 이 얼마나 기분좋은 일인가! 한국경제는 젊고 역동적이다. 경제 50년의 성장 곡선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경험상으로 보면 콩고에서의 생활은 불안과 불편함의 연속이었던 것 같다. 계속적정한 긴장을 유지해서인지 몰라도 다행히 말라리아는 발병하지 않았다. 반면 태국은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 내 이웃집과 같은 나라이다.

사실 봉사라는 관점에서는 최빈국에 가서 동거동락하는 것이 제격일 것이다. 개도국의 빈곤감소를 위한 노력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이 개선된다면 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가. 그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불편은 감수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국이 지금까지 이뤄온 압축성장이 빠름의 행복을 가져다주었다면 이제는 한 발자국 느리게 가는 행복을 추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기본에 충실하고 한 세기 앞을 내다보는 비전으로 안정된 발전을 이루어 나가면 좋겠다. 되돌아볼 때 해외 봉사활동이 결코 녹록치 않았음을 고백하게 된다. 아쉬운 점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민족이 해외로 진출해야 하는 당위성을 깨달을 수 있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개개인이나 국가전략상으로도 해외 봉사활동은 바람직한 일이다. 중국과 일본이 개발도상국에서 행하고 있는 엄청난 경제활동 규모를 보면서 한국 위상의 열세를 실감하였다.

대한민국이 번영하는 길은 더 많은 인적자원이 해외로 진출하고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글로벌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부는 기업을 지원하고 국가 간 협력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해외 진출과 투자, 해외원조와 국제협력 등 대외 발전전략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참고 문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2.5.11, 행복지수의 중요성과 시사점
– KOICA ODA 교육원, 2013, 국제개발협력 첫걸음,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협력단 홈페이지(www.koica.go.kr)
– 한국은행 홈페이지(www.ecos.bok.or.kr)